

Style 1 조선일보

OCTOBER 2021
vol.228



RALPH LAUREN



CHANEL



12



30



아름다운 도시 밀라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021 가을 윌프 로렌 퍼플 라벨 컬렉션. 블랙 수트를 입은 4명의 모델이 가지는 캠페인 비주얼을 보면 알 수 있듯, 밀라노 스타일의 구조와 세련미를 모두 확보한 윌프 로렌의 새 컬렉션에서 클래식 테일러링과 커스텀 우븐 텍스처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문의 02-6004-0133



18



10

- 10 **SELECTION** 최상의 소재와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구현한 본질적인 우아함.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클래식 데이 웨어.
- 12 **서울, 미술관이 살아 있다** 오늘날 도시 신축자들이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체험할 때면 신중필구 역동적 매력에 놀란다. 제롬이든 서니스든 공간이든 '문화화'의 내공이 빼어나고, 그 실력을 반영한 공간과 콘텐츠가 도시를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단연 그 선봉에 있다. 팬데믹 시대 이전에 아시아 도시들이 문화 예술 주도권을 가늠해 바쁜 행보를 펼치고 있었는데, 지난 2년 새 창조적인 문화 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은 급상승했다.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미술관을 둘러싼 풍경도 일취월장하고 있다. 다채로움과 깊이를 더해주는 공간들이 생소아나고 있는 서울의 아트 산을 살펴본다.
- 15 **CANDY CRUSH** 알록달록, 달콤한 캔디를 연상시키는 유색 주얼리.
- 16 **RULE THE SKY** 선구적 기술력과 현대적 미학 코드로 무장해 남성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파일럿 워치.
- 17 **BLACK OBSESSION** 맑은 웃음, 고요한 눈빛이 교차하는 배우 정일우의 어떤 순간들.
- 18 **THE MOMENTS** 맑은 웃음, 고요한 눈빛이 교차하는 배우 정일우의 어떤 순간들.
- 26 **THE MASTERPIECE** 시대를 뛰어넘는 세련된 디자인, 미학적인 연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완벽을 추구하는 워치메이킹의 역사이자 선두 주자 브레게. 정교하고 섬세한 스타일로 전통을 이어 나감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대담한 워치메이커로서 브레게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한다. 주얼리와 워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뉴 트래디션부터 눈부시게 화려한 레인 드 네이플, 브레게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마린 컬렉션과 하이 주얼리 컬렉션까지,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워치메이커 브레게의 아름다운 피스들을 소개한다.
- 30 **WALK IN COLOR** 자광선, 태양, 바람, 그리고 빛. 공간과 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장소에서 모델들이 걸어 나오는 런웨이가 시작되었다. 패션쇼 이상의 특별함을 보여준 예술적인 경험. 에르메스의 2022 S/S 컬렉션이다.
- 31 **THINK NATURE** 환경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들고, 더 존중하는 지속가능성의 시대. 재활용 소재로 탄생한 호안 3R 컬렉션을 이야기하다.
- 32 **PERFECT EYES**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눈가 피부. 미세 주름, 부기, 다크서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탄력 남기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아이 케어.
- 33 **SPECIAL TIGHTENING**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동안 관리에 소홀했던 피부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바쁜 일상으로 치일피일 관리를 미루고 있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추천한다. 떨어진 피부 탄력을 되찾아줄 효과적인 홈 뷰티 디바이스 듀오.
- 34 **EDITOR'S PICK** 환절기 피부를 위한 극약 처방!



Tod's Korea Inc. 02 3448 8201

Style 조선일보 Issue.228 October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장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재무 관신비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찾아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외로 발행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 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ods.com



#핸드크림

향기롭고 촉촉한 핸드크림 4.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부렛 244 핸드크림** 알로에 베라 추출물과 식물 유래 천연 오일, 시아버터를 이상적으로 배합해 건조하고 갈라진 손에 보습과 영양을 더해 탁월한 진정 및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 30ml 2만1천원. 문의 02-6905-3385 **시벨 뷰티 리프트 라크렐 망 스킨케어** 알파벳 농축물이 피부 탄력을 재창조하고, 자연 유래 건조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저해해 다크 스폿 감소에 효과적이다. 50g 8만7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리본 핸드 폼드 핸드크림** 구약한 제형으로도 피부에 흡수시도를 덜 눌러주라만큼 끈적임 없이 담백하게 흡수된다. 시아버터, 스위트 아몬드와 풍부한 영양과 미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허니키 향을 품었다. 55ml 3만3천원. 문의 02-6971-3204 **달리크 오 로즈 핸드크림** 샌티플리아 정미와 디아스키스 정미의 풍부하고 관능적인 향을 담은 핸드크림. 알로에 베라와 마카리아 오일을 함유한 촉촉한 크림 제형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내일과 큐티클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45ml 5만1천원. 문의 02-3479-6049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배시현**

AUTUMN PALETTE

계절이 바뀌면 가장 먼저 찾는 메이크업 아이템은 립스틱이다. 에르메스 뷰티에서 가을 색으로 물든 루즈 에르메스 2021 F/W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저녁 안개나 수면에 비친 정미의 그림자처럼 이리한 분위기의 핑크 톤의 로즈 타미제와 계절에 따라 붉게 물든 달처럼 빛나는 오렌지 톤의 오렌지 브릴레, 깊은 한밤중 울려 퍼지는 비명처럼 강렬하고 폭발적인 핑크 로즈 마진타까지, 총 세 가지 컬러의 매트 립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 파래진 하늘과 질어진 색감의 가을 낙엽을 담은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컬러가 눈을 사로잡는다. 3.5g 9만8천원. 문의 02-310-5174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GENTLEMEN'S CLOSET

장성스럽게 지은 옷은 실루엣에서 그 진가를 조용하고 강하게 드러내는 법. 람프 로렌 파들 라벨에서는 고급 천연 섬유와 섬세한 재조 과정으로 구현한 옷에 담긴 자연스러운 품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시즌, 로렌과 브라운 컬러로 목가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와 예술적인 요소를 기묘해 도심에서의 멋스러운 이웃맛을 제안한다. 프러트 포켓과 드로스트링 디테일로 활동성을 다한 시어링 필드 재킷 8만1천원. 문의 02-3438-6235



나만의 행운

자녀는 순간 나만의 부자(녀) 되는 행운의 의미가 담긴 주얼리 3.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빈클루프 아펠 빈티지 알렉산드라 펜던트** 1988년 행운의 상징인 네 잎 클로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알렉산드라 주얼리 컬렉션으로, 옐로 골드에 카누리언으로 이베진 나크리스 3만1천원. 문의 1688-1906 **타미나 빅토리 키 펜던트** 플라티넘,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 총 19.63캐럿과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9.63캐럿으로 장식된 우아한 디자인의 키 펜던트.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안상을 축복하는 행운을 의미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소피드 해미 하트 링** 소피드의 상징인 하트와 아이코닉한 무빙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뤄 따뜻한 미소와 활력의 의미를 상징하는 링.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타미나 스톤으로 이뤄져 있다. 2만3천원. 문의 02-6905-339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배시현**



BVLGARI ROMA



우아함의 미학

오랜 세월 많은 사랑을 받아온 스티드셀러로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서 여성 시계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며 디자인과 기술적인 면에서 모두 최고의 타임피스로 인정받은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 그중 여성의 풍부한 감성을 브레게의 기술로 빛아낸 이 시대 최고의 걸작 레인드 네이플 오토매틱 워치 8918BR을 소개한다. 우아한 에그셰이프와 자개판으로 이뤄진 다이얼, 예술적인 감각을 담은 아라비아인덱스 등 기존 레인드 워치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체에서 영감을 받은 로즈 골드 밴드 브레이슬릿을 추가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마치 하나의 워치이자 주얼리인 동시에 아티피스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7천9백만원대. 문의 02-3149-9559

30일의 기적

안티에이징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그 욕심을 늘 가득 채워주며 진화를 거듭하는 랑콤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으로 더 강력해진 제너피크 센서티브 듀얼 컨센트레이트를 선보인다. 랑콤 제너피크의 시그니처 성분인 일곱 가지 프리 &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담긴 마이크로바이옴 베이스 세럼과 98% 순도의 향산화 블루 부스터 앰플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활성화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산화도를 높인 것이 특징. 여기에 30일만 집중 사용하면 도시 환경과 노화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다. 환절기 날씨에 민감해진 피부와 무너진 밸런스가 고민이라면 피부 장벽 강화와 각질 케어, 주름 개선까지 다각적 케어를 도와줄 랑콤 어드밴스드 제너피크 센서티브 듀얼 컨센트레이트를 추천한다. 200ml 12만9천원대. 문의 080-022-3332



EXHIBITION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흔치 않은 자화상 등 다양한 초상 작품을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10월 1일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막을 올린 <앤디를 찾아서(Looking for Andy)>.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컬렉션 소장품을 주요 도시에 소개하는 미술관 벽 너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시인데, 루이 비통 메종 서울 내 공간이라 작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구성이 탁월하다. 앤디 워홀은 주로 수프 통조림이나 바나나, 꽃 등 실크스크린 작품으로 대중에 친숙한데, 이번에는 그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얼굴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전사라 눈길을 끈다. 특히 스스로 아이콘이 되고자 했던 나르시즘의 신화로서 부각되는 화려한 모습보다는 고뇌에 빠진 듯한 눈빛이나 앙상하고 쓸쓸한 모습의 자화상, 드래그 퀸 모습을 한 폴리로이드 사진 등 워홀의 내면을 담은 듯한 작품이 한데 모여 사선을 고정시켰다. 1930년대 인기 캐릭터 '세도우'를 차용한 시리즈 중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1981년) 같은 경우는 이번엔 처음 공개된 소장품이라고. 내년 2월 6일까지.

FATAL ATTRACTIVE

1백61년 전통의 스위스 시계 및 주얼리 명가 쇼파드에서 25년째 제임스 본드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매력적인 본드 걸 필로마 역할을 맡은 배우 아나 디아르미스는 쇼파드 그린 카펫 컬렉션의 세 가지 오트 주얼리 모델을 착용했다. 무려 총 43캐럿에 달하는 배 모양의 다이몬드로 만든 목걸이부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2캐럿으로 만든 팔찌, 14캐럿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귀고리까지, 이롭답고 매력적인 본드 걸의 활약과 그 차이가 완벽하게 소화한 쇼파드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로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0



BE CLASSY

이탈리언 특유의 부드럽고 클래식한 세이프가 돋보이는 토즈의 T 타원리스 백. 어깨 스트랩에 가죽 끈 애플과 작은 타이 디테일을 더해 감각적이다. 마그네틱이 없는 클로저가 늘고 쉽게 여탈을 수 있으며,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브라운, 블랙, 화이트 등 세 가지 컬러가 컬렉션을 이룬다. 문의 02-3438-6008



BACK TO 1990s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헤어 액세서리.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 실크로 제작한 트리코프 모노그램 스크런치 가격 미정 **셀리노**. 문의 02-549-6631. 매끈한 브론즈를 지본콘 파츠로 장식해 반짝임을 더한 핑디 오락 헤어 클립 50만원대 **밴디**. 문의 02-514-0652. 블랙과 골드의 세련된 조합에 스트라스 레터링으로 상징성을 더한 헤어 핀 가격 미정 **사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미** 어시스턴트 **배서현**



LANCÔME PARIS



롱지비티 사이언스로 켜지는 피부 스위치
압솔뤼로 되돌아가는 피부 나이, 강해지는 피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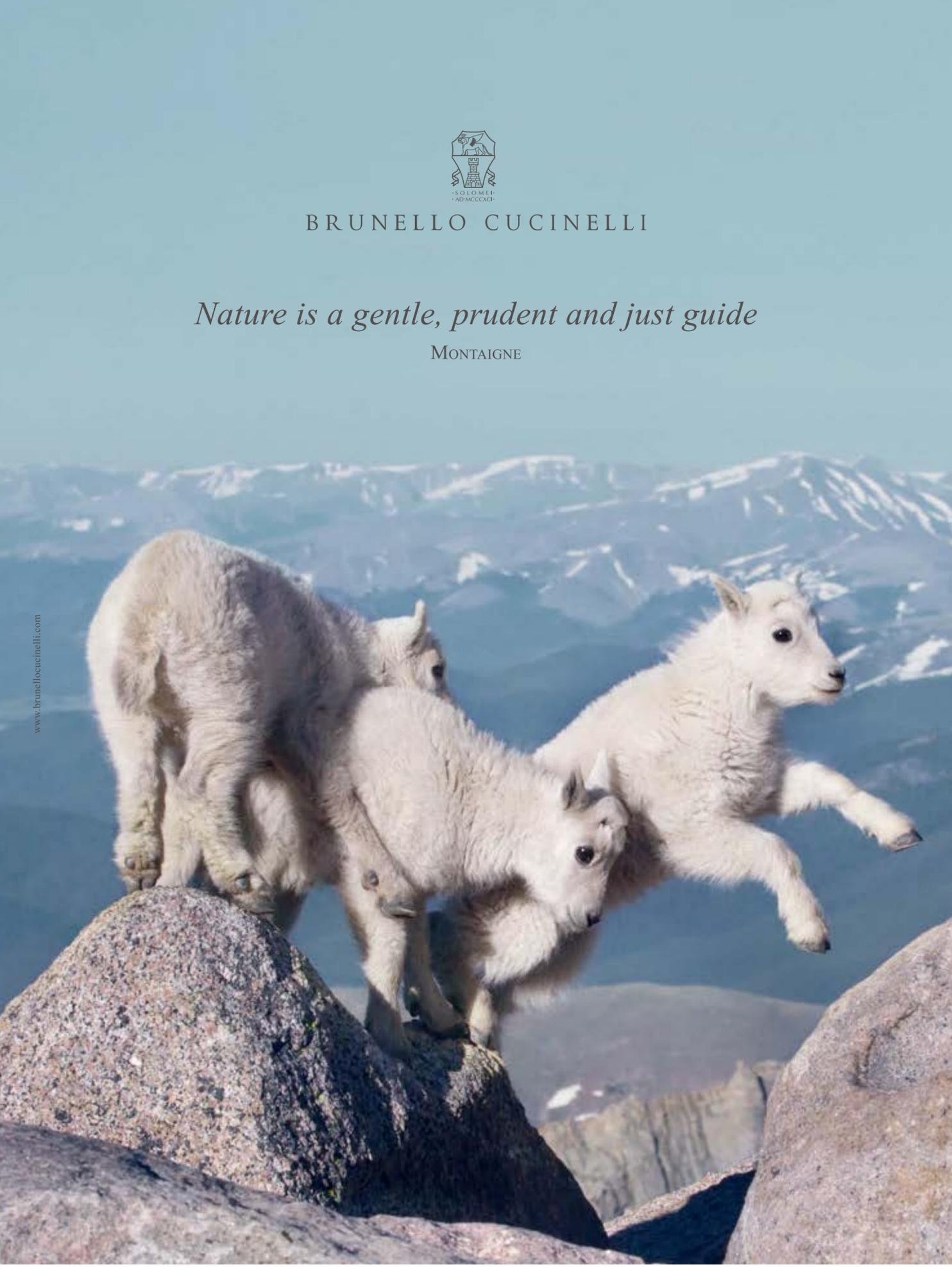


ABSOLUE THE SERUM
NEW 압솔뤼 더 세럼



Selection

최상의 소재와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구현한 본질적인 우아함.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클래식 데이 웨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BRUNELLO CUCINELLI

Nature is a gentle, prudent and just guide

MONTAIGNE

www.brunellocucinelli.com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점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 AK 플라자 분당점



아트 스페이스의 미학 서울, 미술관이 살아 있다

21세기에는 소프트 파워가 주도할 것이고, 그 핵심 축으로 문화가 꼽힌다는 요지의 주장은 이제 지겹게 들리기도 하지만, 요즘 문화 콘텐츠의 힘이 새삼 피부로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단지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 그룹이나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 같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세계만의 얘기가 아니다. 오늘날 도시 산책자들이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체험'할 때면 십중팔구 역동적 매력에 놀란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공간이든 '문화화'의 내공이 빠져나고, 그 실력을 반영한 공간과 콘텐츠가 도시를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단연 그 선봉에 있다. 팬데믹 시대 이전에 아시아 도시들이 문화 예술 주도권을 겨냥해 바쁜 행보를 펼치고 있었는데, 지난 2년 새 창조적인 문화 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은 급상승했다. 거의 나 홀로 상승세 분위기를 타면서 말이다.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미술관을 둘러싼 풍경도 일취월장하고 있다. 다채로움과 깊이를 더해주는 공간들이 샘솟아나고 있는 서울의 아트 산을 살펴본다.

LEEUM MUSEUM OF ART

올해 국내 미술계는 '이건희와 삼성을 빼고 얘기하기 힘든 한 해'로 기억될 듯싶다. 상반기부터 가치를 매기기 힘든 규모의 미술품 가격으로 온 나라를 들썩이며 서울, 대구, 광주 등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성황리에 펼쳐지는 데 이어 올 가을에는 겨울잠을 오래 잤던 리움미술관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리움 자체가 설립자의 성 Lee와 미술관을 뜻하는 'museum'을 합한 명칭이다). 지난 2017년 이후 기획전을 열지 않았고, 팬데믹 이후로는 상설전도 막을 내렸던 터라 고미술과 근현대미술을 막론하고 국보급 소장품은 물론 동시대를 상징하는 뛰어난 작가들을 마음껏 모으는 기회를 할 수 있는 블루버스터 미술관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 '스타카토'가 설계한 거대한 공간에 잘 어울리는 초대형 작품을 들여놓는 '규모의 미학'이 인기를 끌면서 '건축이 미술관의 아이콘이 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불거져 나오지만, 사실 관람객 입장에서는 송은의 아트 스페이스처럼 산책하듯 거닐 수 있는 크지 않은 공간도, 리움처럼 많은 걸 품을 수 있는 압도적인 공간도 모두 매력적일 수 있다.

풍성한 무료 상설전,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기획전
간만에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온 만큼 리움미술관은 여러 모로 준비에 성의를 보였다. 정구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주도로 미술관 로고를 7년 만에 바꾸는 등 뮤지엄 아이덴티티(MI)에 변화를 꾀했다. 리움의 명물인 로툰다홀의 단순화

한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아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모양새를 띤다. 로비도 로툰다를 중심으로 재편해 김수자와 이배 등의 작품을 새롭게 설치했다.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2백40여 개의 슛을 세워놓은 작품은 이배의 '볼로부티'(2021)인데, 관람객 모두가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을 고양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을 담았다고 한다. 로툰다 천장에 설치된 김수자 작가의 '호흡'(2021)은 특수 필름을 활용해 날씨 변화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의 스펙트럼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로비 한쪽 벽면을 감싼 미디어 월도 주목할 만하다.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중 가장 우수한 화질인 5천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이 월에는 현재 3D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구자인 미국 작가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아름다운 자연을 상상하게 하는 디지털 영상 작품 3점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디지털 미술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로비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미술과 근현대미술 소장품 공간이 나누어 펼쳐지는데,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과거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장품을 다수 선보였다. 상설관은 앞으로 무료로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사전 예



'공간의 문화화'가 문화적 흐름이 되어버린 만큼 미술관(museum)이나 이에 준하는 아트 센터가 받는 압박감은 상당할 것 같다. 국가나 도시별로 펼치는 헤게모니 쟁탈전 정도는 아니어도 자존심 걸린 내공과 자본의 승부랄까. 이미 글로벌 미술계는 기업이나 재단에서 막대한 자본과 마케팅 역량으로 꾸리는 미술관이 커다란 존재감을 발휘하는 풍경에 익숙해진 지 오래됐지만, 메세나든 긴 안목에서의 브랜딩 투자든 '랜드마크'가 되는 미술관은 도시에 굉장한 부가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사실 대중 입장에서 공공이나 시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간과 콘텐츠' 자체가 더 크게 와 닿게 마련이다. 질적인 수준이나 규모,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 같은 요소도 중요하고 말이다. 이런 배경에서 송은문화재단 신사옥(ST송은빌딩)의 순조로운 낙성은 자못 기대되고 궁극해왔던 소식이었다.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건축계 브랜드로 꼽히는 HdM(헤어초크 & 드 뫼퉁)의 국내 첫 작품이기도 하거나와 송은문화재단을 운영하는 ST인더내셔널(舊 삼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굳이 브랜드를 내세우는 마케팅 수요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순수한 미술계 후원자로서 존속해온 이력이 있어서다.

HdM의 국내 첫 건축물, 넘치지도 덜하지도 않는 정제미를 품은 공간
파사드에 창이 2개만 나 있는 미니멀한 콘크리트 외벽 건물(지상 11층, 지하 5층). 사실 잘 살펴보면 뒷면부가 대각선으로 사면을 깎아 층층이 테라스를 둔 디자인이 눈에 띈다. 특히 측면에서 보면 꽤 특이한 날카로운 삼각형 건물이지만, 언뜻 지나치기 쉬울 정도로 대로에서 바라다보이는 외관은 요란하지 않다. 그래서 송은문화재단 신사옥은 이 건축물이 들어선, 온갖 명품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도산대로의 화려하기도, 또 건조하기도 한 풍경과 자못 대비되는 듯 느껴진다. HdM 건축사무소를 이끄는 건축가 듀오 중 한 명인 자크 헤어초크는 이 건축물을 두고 교회나 성당 느낌이 난다고 했다고 한다(이번에는 그의 평생 파트너인 피에

르 드 뫼퉁만 서울을 찾았다). 건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사드의 표면이 나뭇등결을 연상시키는 목판의 문양과 결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궁극해왔던 요소다. HdM은 표면을 통한 다양한 실험으로 '표피'가 자체적인 공간을 머금은 듯한 표현성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소나무'를 뜻하는 '송은(松雲)'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HdM의 파트너 마틴 크누젤은 "타투를 입힌 것 같기도, 회화 작품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움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첫인상은 '절제된 품격'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데, 내부로 발을 들이면 또 다른 분위기의 풍경이 펼쳐진다. 경건함은 여전히 묻어 있지만 보다 해사하고 융통성이 느껴진다. 특히 개관전 1부(오는 11월 20일까지)를 진행 중인 여러 층에 걸친 전시 공간은 전반적으로 고요하면서도 군데군데에서 낭만이 묻어난다. '콘텐츠' 자체를 편안하게 살려주는 평온한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상 도입부의 스박한 야외 정원을 낀 1층을 비롯해 1층 로비에서 2층 전시장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의 완만한 곡선미, 그리고 지하 2층 전시장에서 1층 천장까지 등근 모양으로 시원하게 뿜려 빛을 통과시키는 구조가 무게감을 자아내면서도 맛스럽게 숨을 터주는 듯하다. "1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하 전시장을 볼 수 있으며, 나선형 계단을 따라 걸다 보면 새로운 공간을 마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시장으로 이어집니다." 피에르 드 뫼퉁은 이처럼 새롭게 발견하는 파운드 스페이스가 그들의 대표작 중 하나인 테이트 모던의 터닝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발견의 미학, 그리고 공간의 다양성을 원했던 클라이언트의 의도가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어 좋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희는 편견 없이 순수한 아이처럼 새로운 걸 찾고 세상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중략). 송은은 어떤 공간, 기능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저희가 즐거운 여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SONGEUN



1 지난 9월 말 공개된 서울 도산대로의 송은문화재단 신사옥 건물(ST송은빌딩) 내부. 지하 2층 갤러리에서 올라보면 1층 로비 공간으로 뿜어낸 정원을 통해 빛이 들어온다. ©Jihyun Jung. All rights reserved. 2 ST송은빌딩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스위스의 듀오 자크 헤어초크와 피에르 드 뫼퉁이 이끄는 건축사무소 HdM이 한국에 설계한 첫 건축물이다. 큰 화제와 기대를 모았다. 청문회 최소좌회고 이-광한 의원에 지상 11층, 지하 5층 건축물로 영업을 보낸 마지 케이트 조각처럼 삼각형을 띤, 날카로운 굽이 하늘을 향한다. 신사옥 낙성을 기념한 개관전 1부에서는 HdM과 협업해온 해외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송은의 설계·건축 과정을 살펴본 국내 작가들의 커리큘럼 작품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20일까지. 3 지상 1층에 설치된 박준범의 영상 작품 'Rewind Irregularly'(2021). 박 작가는 미술관 건 내면 오픈스텔 옥대(가)에서 3년간의 공사 과정을 거의 매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한다. 4 지하 2층 전시장에 설치된 스위스 작가 르네 플러의 레이 치우그의 합판 작품(1900 / 2021). 2채널 영상에 눈 내린 산을 그리고 있는 작가(레이) 모습이 보인다. 5 건물 진입로에 설치된 슬기워인의 단채널 비디오 작품 'Materials and Transitions'(2021).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 Jihyun Jung. All rights reserved.



1 3D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구자인 미국 작가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디지털 영상 작품 '보이지 않는 눈'. 자취·무술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작가의 다른 작품 '태고의 2', '회화'와 더불어 상영되고 있다. 이렇듯 리움미술관 로비의 한쪽 벽면에는 미디어 월을 생각해 다양한 디지털 예술의 소용돌이를 파헤치는 장구 역량을 해-김 예강이다. 2 로비에 설치된 김수자의 '호흡'(2021, 혼합 매체, 7면 크기, 리움미술관, 김수자스튜디오 제공). Photo by 허승범 3 청사 소장품 전경(M1, 4층). 현재 고미술 상설전에는 국보 6점, 보물 4점을 포함한 1천54점의 고미술 작품을 전시 중이며, 그 사이사이에 은근한 조화를 빚어내는 현대미술 6점이 함께한다. 이미지 제공 리움 4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리움의 기획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 도입부. 맨 앞에 보이는 조지 시겔의 러시 아워(1983)를 비롯해 앤디 워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 작품들이 서 있다. 내년 1월 20일까지. 5 세 단장을 끝마치고 공개된 리움의 현대미술 상설전에서는 3개 층에 걸쳐 이상현(행상), 김은 공백, 영력의 역행항을 주제로 다양한 소장품을 선보인다. 사진 속 유리 조각 작품은 로니혼, 무제(2012~2014). ※ 1, 2, 4, 5 이미지 Photo by SY Ko

약이 필수라 당분간 경쟁이 꽤 치열할 듯싶다. 미술 애호가라면 아무래도 4년 반 만에 열린 리움의 기획전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리움의 첫 카드는 팬데믹 시대를 맞아 인간 존재를 성찰하고 그 다양한 면면을 다룬 <인간, 일곱 개의 질문>이란 전시다. 국내외 작가 51팀의 1백30여 점을 소장품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리움의 명성에 걸맞은 20세기를 풍미한 거장들의 작품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주제별로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일단 전시장으로 내려가는 도입부의 경사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대표작인 조각 작품 '거대한 여인 III'(1960)이 앙상하고 긴 자세를 뽐내고 있고, 영국의 조각 거장 앤디 워홀의 기하학적 추상 조각 '표현'(2014), 그리고 허무한 표정을 짓는 도시인들의 군상을 등신대 크기로 묘사한 조지 시겔의 러시 아워(1983) 등이 관람객을 반긴다. 이어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 전시 공간에는 이브 클랭, 앤디 워홀, 신디 셔먼, 론 뮤

익, 브루스 나우먼 등 현대미술계 블루칩 작가들은 물론 이블, 최우람, 니키 리, 김민숙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들이 각각의 소주제에 맞게 어우러져 있다. 인간의 '몸'이나 '뒤편' 성, '혼종성' 등의 소주제를 다루다 보니 다소 파격적인 사진이나 영상 작품도 있어 '하드코어 애호가'라면 두 팔 벌려 반길 수도 있다(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리움은 기획전도 올해 말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제 첫 단추를 다시 꿰었는데, 다른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동시대의 진정한 거울이 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글 고영현





타데우스 로팍 서울, '게오르크 바젤리츠로 문을 열다'

런던, 파리 등 유럽을 주 무대로 예술 스펙트럼을 펼쳐온 타데우스 로팍이 아시아 지역 첫 지점으로 '서울'을 선택했다. 박주환 건축가의 설계로 여러 건축상을 수상한 포트힐 건물 2층에 자리 잡았다. 자택에 있는 갤러리 비튼을 비롯해 한남동 일대에는 가나아트, 박여숙화랑, P21, 알부스 갤러리 등 다수 갤러리가 터를 잡고 있다. 타데우스 로팍(Thaddeus Ropac)은 갤러리스트 이름을 그대로 딴 화랑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1983년 처음 문을 열었다. 소속 작가 명단을 보면 장광하다. 도널드 자드, 요셉 보이스, 로버트 라우센버그, 로버트 메이홀름스 등 미술사에 자취를 새긴 작가 재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안젤름 키퍼, 게오르크 바젤리츠, 길버트와 조지, 앤터니 골리, 엘리자베스 페이턴 같은 동시대의 출중한 작가들과 일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불과도 긴 인연을 이어왔다. 그저 '이불'이란 화려한 게 아니다. 작가들과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데는 미술관 같은 기관과의 협업 전시와 출판 등 아카이브 작업 등에도 공을 들이며 쌓은 신뢰가 바탕이 됐다. 그래서 작품을 파는 게 아니라 'right placement'를 한다는 게 신념이라고. 개관전 작가는 독일 신표현주의 가장으로 지난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인전을 했던 게오르크 바젤리츠. 10월 20일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진행하는 83세의 노장인데,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12점의 회화와 12점의 드로잉 신작을 준비했다.

전시명 게오르크 바젤리츠, (기르니 호텔)展 전시 기간 2021년 11월 27일까지

art fever in hannam

요즘 아트 신은 워낙 활발하지만 서울 한남동의 존재감도 예사롭지 않다. 원래 패션, 미식 등의 콘텐츠로는 남부럽지 않은 동네였지만, 최근 들어 메이저 브랜드 갤러리는 물론 멋과 격을 지닌 각종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겨나면서 또 하나의 '예술 특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마침 리움미술관도 다시 문을 열었기에 '순례 코스'로도 적합하다. 올해 문을 연 삼색 갤러리를 소개한다.



페이스갤러리, 미술관 옆 글로벌 아트 파이프

글로벌 미술계에서 손꼽히는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페이스갤러리는 원래 작게나마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페이스다운 규모와 외양을 지닌 새 전시 공간을 꾸려 선보였는데, 리움미술관에서 조금만 대대로 내려오면 마주치는 건물인 서울 한남동 르베이지 빌딩에 들어섰다. 이 건물의 두 층을 아우르는 약 800㎡에 펼쳐져 있는 갤러리 공간의 레노베이션은 조민석 대표가 이끄는 매스터디스에서 맡았다. 우아한 야외 정원도 작품의 전시 무대가 된다. 페이스갤러리의 서울점은 원래도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여오긴 했지만, 새로 문을 연 이래 생 갈리엄, 조엘 사피로 등 세계적으로 무게감을 지닌 작가들의 전시를 예전보다 규모 있게 펼쳐내면서 한층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대중에게도 친숙한 이름인 모빌 조각의 상징과도 같은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개인전이 진행 중이다(미국 MoMA와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등에서도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금속과 철사로 제작한 모빌 등 칼더가 30년 동안 작업한 조각 작품의 일부를 서울에서 관람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의 종이 작품 8점을 접할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대중에게는 덜 친숙할 수 있지만, 칼더의 작업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종이 작품 중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작한 인크와 과수 작품은 칼더가 주로 말년에 사용했던 매개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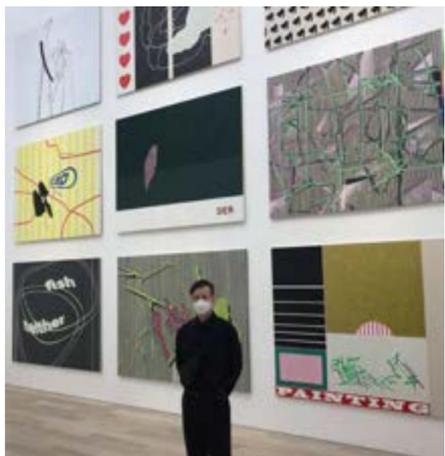
전시명 칼더(Calder)展 전시 기간 2021년 11월 20일까지



파운드리 서울, 작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컨템퍼러리 아트 갤러리

이마도 서울 이태원(한남동에서 가장 '핫'하다고 소문난 최근 매장은 구찌 가옥일 것이다. MZ 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국내 단독 매장을 냈는데, '가옥(gaok)'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지역적 요소를 기미한 이 매장은 한동안 서서 입장하기 일췌했던 핫플. 그런데 구찌 가옥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는 전시 전용 면적만 398㎡로 작은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갤러리도 자리하고 있다. 지난 6월 문을 연 파운드리 서울은 '블루칩 아티스트와 더불어 동시대 미술계가 주목하는 이머징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컨템퍼러리 아트 갤러리'를 표방한다. 실제로 개관전으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아티스트로 팝 문화와 이미지 문화를 흥미롭게 엮어내는 헨닝 스트라스부르크(Henning Strassburger) 전시를 열어 이목을 끌었고,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신성'으로 미국 뉴욕을 근거지로 활약하는 이건 프란츠(Egan Franz)의 개인전 (Not Enough Words)를 시작했다. 직접 서울을 찾자 자신의 전시를 소개한 이건 프란츠는 1986년생의 젊은 작가지만 문학, 철학, 예술사 등에 대한 깊은 지식과 사유를 바탕으로 조각, 설치, 모노크롬 회화부터 최근 집중하고 있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색채의 추상 회화에 이르기까지 나를 폭넓은 스펙트럼의 예술적 여정이 돋보인다. 파운드리 서울 내에는 동시대 예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작가들의 지원 플랫폼으로 바이파운드리라는 전시 공간도 두고 있는데, 현재 미디어 아티스트 정명식의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글 조성연**

전시명 이건 프란츠, (Not Enough Words)展 + 정명식 (Surreal Jelly)展 전시 기간 2021년 12월 19일까지



Candy Crush

알록달록, 달콤한 캔디를 연상시키는 유색 파인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무색로 **피셔 로열 블루 아쿠아마린 S 모티프** 링 지퍼, 용기, 사랑, 뜻을 뜻하는 **베를 모티** 브로치 **에중이 대표 주얼리**, 온오프 반짝임을 더하는 **트위스트** 차인 링 **위 밤 마리를 상징하는 드림 모티** 브로치 **아쿠아 마린** 링, **프라이즈**를 즐겨 신비한 매력을 내뿜는다. **오픈워크** 기술로 구현해 편안한 **최용규**와 **기복**을 신성한다. 2천원대. 문의 02-772-3508 **블라자 디바스 드림 레이슬리** 부채꼴의 유려한 곡선과 다양한 정교함을 접목해 찬사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을 예찬하는 **결핵선**, **에미스트**, **블루 토피즈**, **시트린 퀴즈**, **파라도트의 다채로운 빛과 화려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생기 넘치고 기쁜 좋은 에너지를 전한다. 1천원대. 문의 02-2056-0171 **다음 피인 주얼리 로즈 디올 프리 카멜란 링** 세심한 수작업으로 완성된 입체적인 장미 모양의 자수정과 이를 감싸는 다이아몬드 장식의 장미 형광 모양 로즈 골드 밴드 가이아워라져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1천원대. 문의 02-3480-0104 **타사키 루미노 파라도츠 니크리스** 청옥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애혹적인 피스, 화이트 골드 플래티네 정교한 **콘크리트** 컷으로 세공한 **파라도츠**를 올려 황홀한 반짝임을 선사한다. 5천원대. 문의 02-3461-5558 **프래드 벨 리브 아퀼** 여명의 신비로운 색감과 지중해의 투명한 비옥함에 다들어진 조어들에서 영감을 얻은 **결핵선**, **핑크 퀴즈**, **로드 크로사이트**와 **블리칸트** 컷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조화를 이루어, 영롱한 반짝임을 선사한다. 2천500원. 문의 02-514-3721 **반클리프 아펠 부 버틀러** **비트윈 디 핑거 링** 나비의 우아한 움직임을 담은 주얼리, 오픈워크로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나비 모양 핑크 플래티네와 리온드미카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플래티네가 나란히 놓여 미묘하고 우아한 빛의 조화를 그린다. 3천원대. 문의 1668-1906 **에두 아쿠아**

rule the sky

선구적 기술력과 현대적 미학 코드로 무장해 남성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파일럿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타리아 루마노 크로노** 다이빙 장밀 장비에 특화되어 바다를 항해하는 데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워치. 지름 44mm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로 한눈에 시간과 미닛 카운터, 스몰 세컨즈 카운터까지 확인 가능하다. 블랙 얼티메이티엄 스트랩을 매착해 깔끔하고 신사적인 느낌을 준다. 1천1백만원대. 문의 02-786-1082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43 우아한 블루 다이얼에 다양한 항공 관련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원형 슬라이드 롤을 장착한 파일럿 워치. 양면 무반사 블루렌즈로 빠르고 정확한 시간 확인을 돕는다. 1천1백만원대. 문의 02-3448-1230
까르띠에 산토스-듀몽 비행기 기합자 산토스-듀몽을 위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제작한 워치로, 파일럿 워치의 시조가 되었다. 핑크 골드 베젤과 다이얼이 우아함을 더하고, 검 모양의 스틸 핸즈와 로마 숫자 인덱스가 빈틈없는 무드를 완성한다. 케이스 뒤편에는 산토스-듀몽의 No.19 비행기를 인그리퍼링해 항공 워치의 상징을 나타낸다. 1천1백만원대. 문의 1566-7277
IWC 빅 파일럿 워치 43 간결하고 기능적인 조종석 계기판 디자인과 1940년대 군사 관측용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원형 로망의 오퍼레이션 크라운에 항공 시계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았다. 큼직한 인덱스와 눈에 띄는 로딩 도그 핸즈까지, 한눈에 빠르고 정확한 시간 확인을 돕는다. 1천70만원대. 문의 1670-7363
제스 파일럿 타임 20 엑스투라 스페셜 감각 스러운 오픈 벤틀, 격렬한 흔들림, 높은 습도와 대압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또 이항 기능의 화이트 핸즈로 항공 시계의 필수 요소인 가독성까지 갖췄다. 비행 중 장력을 긴 상태로도 조절 가능한 커리안 크기의 크라운이 특성을 더해, 프랑스 항공 시험 기중에 공급된 진정한 항공 워치의 위엄을 보여준다. 1천26만원대. 문의 02-3277-0185
에거 로블트르 폴리머스 크로노그래프 월드 타임 한눈에 들어오는 지름 44mm의 케이스 사이즈 특징. 다이얼은 유백색, 그레이링, 스텔이 브라운을 혼합한 미감으로 풍성한 깊이감을 선사한다. 10시 방향에 위치한 크라운을 돌리면 시계의 낮 밤 디스크가 움직이고, 해당 도시의 시간이 표시되어 24개 도시의 시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2천50만원대. 문의 1670-1833
에터 상장된

black obsession

조용하지만 강한 속삭임,
우아하고 강렬한 감정을 품은 블랙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타피니 T 스커이 링** 메종을 상징하는 T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은 기하학적 형태가 돋보이는 주얼리. 로즈 골드 플레이트에 블랙 옻칠을 장식해 특유의 정체되고 모던한 분위기를 이어준다. 핑크과 레이아웃해 착용하면 더욱 풍성하게 주얼리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2백30만원대. 문의 02-6250-8620

파이에 포제션 오픈 밴드 브레이슬릿 매혹적으로 타공하는 회전 모티브를 통해 특유의 유쾌한 감성을 전하는 오픈 밴드. 손목을 부드럽게 휘감는 컷팅 타피니 브레이슬릿 양쪽 끝에 약 0.53캐럿의 카보숑 컷 옻칠을 시팅했다. 9백만원대. 문의 02-3479-1802

스피드 해피 하트 네그리스 하트 모티브의 아이코닉한 워밍 다이아몬드의 조합이 생기 넘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한다. 하트 플레이트에 옻칠을 둘러 트윈 매력을 더했다. 3백48만원. 문의 02-6905-3390

부레틴 리트르 블랙 다이아몬드 스몰 링 고풍, 클래식, 그로그렝 등 프랑스의 건축학적 코드를 재해석한 네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해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 화이트 골드를 메인으로 다이아몬드 장식한 밴드와 블랙 PVD 링을 더해 프랜치 로큰롤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했다. 9백만원대. 문의 02-772-3508

까르띠에 클라쉬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보족한 스타일과 동근 피코 장식의 대담적인 코드가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피스. 핑크 골드 소재를 메인으로 심고 블랙 옻칠을 포인트로 장식해 강렬한 개성과 자유로움을 담았다. 2천76만원대. 문의 1566-7277

블리 비제르윈 매트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 로제 골드 세팅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 우아하고 일찍이 나신 형태가 돋보이는 로즈 골드 링에 블랙 세라믹 기하배 간섭과 전대를 뛰어넘는 미학적 요소를 곁들였다. 8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에디터 야주이



롱 슬리브 니트 롱오버, 와이드 올핀츠 모두 가격미정 **에르메네비질로 제나**, 화이트 키모 레터 스니커즈 가격미정 **쥘리아스**, 오트슨 약자에 착용한 비제단원 화이트 코트 **김 3백만원대 불가리**.

맑은 웃음, 고요한 눈빛이 교차하는 배우 정일우의 어떤 순간들, photographed by **kim sin ae**

THE MOMENTS



도브 임브로이 [다리 레이스 셔츠,
블랙 유광 레이스업 부츠 모두
가격미정 **알렉산더 맥퀸**, 탄업
커피스 디테일 캐버딘 팬츠
89만3천원 **엘포리오 아르마니**.



기하학 패턴 스웨터 가격 미정, 슬림핏 스트라이프 팬츠 1백70만원, 브러시드 레더 데비 슈즈 1백49만원 모두 **프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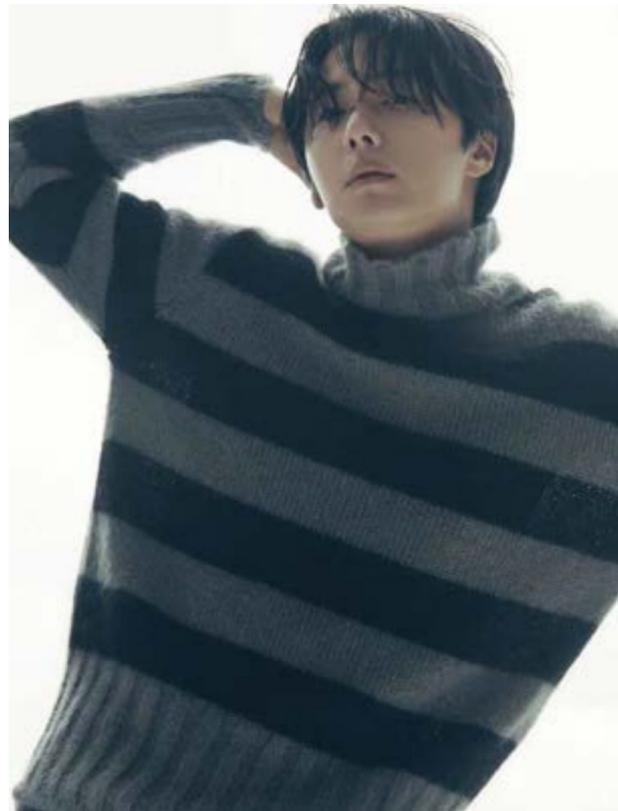
그린 컬러 캐시미어 후드 스웨터 2백79만원, 블랙 니퍼 래더 키고 팬츠 가격 미정 모두 **산바토레 데라가모**, 영웅 중지에 착용한 니제르엔 블랙 세터미 & 로즈 골드 링 2백만원 **데라가모**, 오트스 인지에 착용한 블랙미 드 가르디에 링크 골드 링 3백89만원 **가르디에**.

크림색 울 터틀넥 70만5천원,
모노그램 자수 장식 니트 홀로 셔츠
70만5천원, 벨벳 코듀로이 팬츠
70만5천원, 스웨이드 셸시 부츠
1백12만5천원 모두 토즈.



이탈리아 피터 피터 (Peter D'orig)의 협업에 선보인 벨벳 코듀로이 캐시미어 스웨터, 4백12만5천원. 디올 본.





그레이 & 블랙 스트라이프 모헤어 터틀넥 1백10만원, 스트레이트 컷 울 플란넬 팬츠 92만원 모두 **렌디 맨**.

벨티드 디테일 블랙 재킷과 코트
모두 가격 미정, 밴딩 웨이스트 테일러드
팬츠 2백84천5천원 모두 **에르메네일도
제나**, 창키 숄 블랙 앵클부츠
가격 미정 **엠펙시오 아르마니**.



헤어 & 메이크업 **장해인**
컨트리뷰팅 에디터 **심우찬**
어시스턴트 **배시현**
스타일링 & 진행 **이혜미**(각원 에디터)

까르띠에 1566-7277
디올 맨 02-3480-0104
불가리 02-2056-0170
실버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일렉산더 맥퀸 02-6905-3472
에르메네일도 제나 02-518-0285
엠펙시오 아르마니 02-540-1115
처치스 02-3479-1140
토즈 02-3448-6008
렌디 맨 02-514-0652
프라다 02-3218-5331

The masterpiece

시대를 뛰어넘는 세련된 디자인, 미학적인 면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완벽을 추구하는 워치메이킹의 역사이자 선두 주자 브레게. 정교하고 섬세한 스타일로 전통을 이어나가면서도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대담한 워치메이커로서 브레게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한다. 주얼리와 워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뉴 트래디션부터 눈부시게 화려한 레인 드 네이플, 브레게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마린 컬렉션과 하이 주얼리 컬렉션까지.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워치메이커 브레게의 아름다운 피스들을 소개한다.



트래디션 7035

은 세상의 반짝임을 담다

브레게 트래디션 컬렉션은 브레게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전설적인 서브 스크립션 워치에서 영감을 받은 타임피스다. 즉 '브레게'라는 브랜드의 기원이자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전통과 현재를 이어가는 중요한 컬렉션인 것. 브레게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트래디션 컬렉션은 2005년 처음 소개된 이후 점차적으로 라인업에 특별한 모델들을 추가했고, 올해는 로즈 골드 버전의 트래디션 담프와 다이아몬드를 더해 기술력과 미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트래디션 7035를 출시해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브레게 트래디션 컬렉션은 셀프 와인딩 타임피스로 선보인다. 이는 이제까지 주로 남성들을 타겟으로 했던 기계식 시계에 미학적 코드까지 겸비해 여성을 위한 위치를 창조하는 데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시계 중심부에 선명하게 장식된 핸드 인그 레이빙과 12시 방향 천연 화이트 머더오브펠 소재의 우아한 오프셋 다이얼을 갖춘 스켈레톤 디자인은 브레게 트래디션 컬렉션만의 트레이드마크다. 이 중 칼리버 505S를 탑재한 트래디션 담프는 로즈 골드 케이스에 샌드블라스트 처리한 메인 플레이트와 로듐 플레이팅 처리한 브리지를 매치해 메

력적인 조화를 이룬다. 베젤에는 6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크라운에는 무브먼트에 사용하는 주얼을 세팅해 완벽한 피니싱 터치를 보여준다. 베렐과 동일한 모터브로 우아하게 장식한 케이스 백의 골드 소재 로터에 서도 위대한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The Tradition 7035

시간을 초월하는 브레게 트래디션 컬렉션에서 최근 새로운 타임피스를 전 세계 88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트래디션 7035는 스켈레톤 타임피스에 다이아몬드를 더해 기술력과 미학에 대한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18K 골드로 이뤄진 베젤에 무려 68개의 0.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골드 무브먼트 플레이트와 브리지에 약 0.45캐럿 다이아몬드 1백90개를 세팅했다. 12시 방향 메인 다이얼은 천연 머더오브펠 아워 캡터로 마무리한 것은 물론 0.19캐럿 다이아몬드를 무려 74개 세팅했다. 그 가운데 다이얼과 플레이트, 브리지에 사용한 18K 골드 소재가 최소한으로 보이도록 다양한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돋보이게 하는 디테일함을 보여준다. 레트로 그레이드 세컨즈 인디케이터에는 2개의 루비와 7개의 핑크

사파이어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무브먼트는 로제트 모터브가 돋보이는 중앙 배렐과 전통적인 브리지, 휠, 파라슈트, 밸런스 휠의 조화를 계산해 배치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화려한 것은 물론 치밀하게 계획된 다이아몬드와 원석의 배치, 컬러 조화는 기존 트래디션 컬렉션의 디테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화려함과 정교함의 정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거기에 베젤의 로즈 골드와 핑크빛 엘라게이터 스트랩, 크라운의 포인트 컬러 조화까지 완벽하다. 이 마스터피스를 마주한 순간부터 워치와 주얼리 메이킹의 완벽한 만남의 결정체를 품으려면 바로 브레게 트래디션 7035를 떠올릴 것이다.



트래디션 담프 7038

sponsored by BREGUET



레인 드 네이플 8938

여왕의 화려함을 표현하다,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

외관부터 여성스럽고 우아한 곡선 세이프를 자랑하는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은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나폴리의 왕비 이턴 카를린을 위해 브레게가 직접 제작한 브레이슬릿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타임피스다. 레인 드 네이플-나폴리의 왕비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성의 풍부한 감성을 브레게의 기술로 빛낸 디자인이 특징이며, 우아한 선과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레인 드 네이플만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한다.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에그 셰이프 케이스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더한 타임피스로 맥을 이어오고 있다. 12시 방향에 각인된 브레게 시크릿 시그

니처와 왜곡된 디자인의 아라비아 인덱스는 단순한 위치를 넘어 하나의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감동을 준다.

Reine de Naples 8938 가장 최근 출시한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의 타임피스다.

무려 3백84개의 0.89캐럿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다이얼이 압도적인 화려함을 자랑한다. 이와 같이 타임피스를 진귀한 쟁스톤으로 장식하는 제작 방식은 워치메이킹에서 5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것인데, 탁월한 기술력은 물론 섬세함과 끊임없는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심원 방식의 전통적인 세팅과 달리 다양한 크기의 쟁스톤으로 다이얼을 커버해 세팅 소재가 최소한으로 보이도록 디자

안하는 스노 기법을 적용했다는 점. 다이얼 플랜지와 섬세하게 홈이 파인 케이스 밴드를 갖춘 18K 화이트 골드 소재 베젤에도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섬세한 화려함을 더했다. 러그에는 쟁스톤을, 크라운에는 브리올레트 컷 다이아몬드를 배치해 총 3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눈부신 빛을 발한다. 다이아몬드와 어울리는 머더오브펠로 다이얼 6시 방향에 오프셋 아워 캡터를 배치했으며, 전통적인 브레게 뉴머털 인덱스와 함께 클래식한 문턱 핸즈로 생동감을 더했다. 주얼리같이 화려하지만 타임피스로서 워치메이킹에 관련된 기술력 역시 놓치지 않았다. 메카니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비롯해 이스케이프먼트 및 실리곤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했으며, 섬세한 엔진 터닝 플레이트를 적용한 무브먼트를 더해 워치로서도 완벽한 기능을 선사한다. 스카이 블루 컬러의 스트랩과 화이트 골드의 세련된 조화가 돋보이는 버전과 로즈 골드의 우아함에 오렌지 스트랩의 경쾌함을 더한 여성스럽고 캐주얼한 버전으로 출시해 각각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다.



레인 드 네이플 8918BB

Reine de Naples 8918BB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이 인상적인 타임피스로, 마스터피스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브레게 시그니처 세이프인 에그 셰이프 케이스는 화이트 골드로 이뤄져 있으며, 다이얼의 베젤과 가장자리에 약 1백 1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다이얼 소재는 머더오브펠로, 화이트 골드로 어울려져 모던한 느낌을 준다. 6시 방향에 위치한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포인트 역할을 하고, 크라운의 브리올레트 컷 다이아몬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엘로 골드 버전으로도 제작 가능하다.



마린 담므 9518

우아한 향해, 마린 컬렉션

브레게 마린 컬렉션은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으며, 바람과 파도를 따라 바다를 향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현대 여성 탐험가를 위해 제작한 워치다. 따라서 편안한 착용감을 갖춘 것은 물론, 실용성을 추구하면서도 스타일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현대 여성의 취향을 담았다. 다이얼에는 바다를 담은 듯 독특한 모티브를 반영했는데, 브레게 하우스의 기묘세 장인들이 해안가에 밀려 들어오는 파도를 연상

시키는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조수라 불리는 이 패턴은 곧은 직선과 원형으로 이뤄진 클래식한 기묘세와는 차별화되는 곡선이 특징으로, 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담기 위해 채택한 형태다. 이 특별한 다이얼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며, 장인들은 깨지기 쉬운 머더오브펠 소재 위에 이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 머더오브펠은 다이얼 뿐 아니라 무브먼트 로터에도 사용해 우아함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해양에서 영감을 받아 브레게의 이니셜을 담은 선박

신호기를 적용한 초침으로 디테일한 재미를 더했다.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마린 컬렉션은 브레게의 대표 워치다.

Marine Dame 9518 마린 컬렉션 중 가장 돋보이는 타임피스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마린 담므 9518이다. 역시 다이얼을 물결무늬인 마리아 스타일로 장식한 머더오브펠로 생기를 불어넣고, 화이트 골드 또는 로즈 골드 베젤에 5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과 우아함을 가미했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 버전에는 페일 블루 컬러의 머더오브펠 다이얼을 매치해 해양의 청량감과 아름다움을 담았으며, 로즈 골드 케이스 모델에는 유백색의 머더오브펠 다이얼을 매치해 심플하면서도 순수한 이미지를 담았다. 두 가지 버전 모두 화이트 스트랩으로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 좋으며, 현대 여성의 모던하고 세련된 우아함을 표현한다. 기술력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데, 메카니컬 셀프 와인딩 칼리버 591A로 작동하며, 실리콘 플렉스 밸런스 스프링과 브레게 밸런스 휠, 로터 위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2백19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 스트랩 또한 활동적인 여성을 위해 기본 레더 스트랩 외에도 러버 스트랩 버전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아름답고 드넓은 바다와 시원한 해양 에너지를 모티브로 삼은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의 타임피스로 디자인적인 면에서나 기술력 면에서도 실용도가 높아 일과 여가를 즐기는 현대 여성에게 꼭 필요한 타임피스가 되어줄 것이다.



마린 담므 9518



마린 담므 9518



레인 드 네이플 8939BB



필안페리얼 하이 주얼리



마리 앙투아네트 당텔



브레게에 매료되었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노하우를 집목한 타임피스를 제작해온 브레게가 주얼리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를 창조하는 데 있어 영감을 얻은 것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며 우아한 여성들이다. 특히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브레게에 대한 열정은 역사에 남을 만큼 유명하다. 브레게는 그녀에게 바칠, 혹은 그녀에게 영감을 받은 수많은 워치를 제작했다. 그녀 외에도 나폴리 왕비 카롤린 뫼라 등이 영위한 황홀한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타임피스들을 소개한다.

Reine de Naples 8939BB

마치 진주에 대한 찬사같이 느껴지는 이 화려한 피스는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레인 드 네이플 여성용 워치다. 밴드는 2백20개의 최상급 아코야 핑크 진주로 이루어졌으며, 베젤과 케이스에 걸쳐 7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다이얼에는 42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머더오브펠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실버드 골드 다이얼과 로즈 엔진에 핸드 인그레이브되어 있으며, 6시 방향의 페이 컷 다이아몬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브레게의 위치메이킹 기술력을 담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 다이얼 지름은 38.5 X 30.45mm.

Perles Impériales High Jewellery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첫 아내 조세핀 황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제작한 하이 주얼리 워치로, 열정적인 예술 애호가이던 조세핀이 구입한 작은 백트 워치 N611에서 영감을 받았다. 베젤 가장자리에서 빛을 뿜어내는 2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밴드는 브레게 대표 여성 컬렉션인 레인 드 네이플의 오벌 형태를 더욱 강조하며, 6시 방향에 커

다란 아코야 진주를 배치해 화려한 주얼리의 느낌을 극대화한다. 다이얼에는 기묘세 기법으로 완성한 화이트 머더오브펠을 매치했으며, 3·6·9·12시 방향에 다이아몬드 마커를 배치했다. 거기에 2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폴딩 클래스프 새틴 스트랩이 조화를 이뤄 여성과 귀족의 우아함을 배가한다.

Marie-Antoinette Dentelle

마리 앙투아네트에게서 영감을 받은 워치로, 그녀의 권위 있으면서도 화려한 자태와 매혹적인 아름다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그중에서도 패션에 대한 그녀의 열정, 특히 레이스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삼았는데, 레이스의 가벼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화이트 골드를 선택했다. 그 위에는 70개의 다이아몬드로 레이스 곡선을 표현했으며, 다른 위치와 마찬가지로 머더오브펠 다이얼에 9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케이스 6시 방향에 위치한 구 모양 장식에는 1.2캐럿에 가까운 루비를 더해 포인트를 주었고, 브라운레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와인딩 크라운을 3시 방향에 배치해 레이스풍 장식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워치에는 무려 총 2.69캐럿 상당의 1백74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에디터 생강민**

예술의 탄생,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

브레게의 장인들은 일반 시계를 넘어 작품이라 불릴 만한 마스터피스를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이는 전통성과 창의성, 기술력에서 세계적 선두를 달리는 브레게가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도약을 하기 위해 시도하는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과거 왕실 귀족들을 위한 타임피스를 제작했던 것과는 연관이 있다. 최초의 여성용 손목시계를 개발한 위치메이커로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위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창립 이래 섬세한 주얼리 기법과 위치메이킹의 기술적



브레게 하우스의 가치를 녹인 신세계 강남점 부티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있던 브레게 부티크가 리뉴얼 오픈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이전보다 브레게 하우스의 가치를 더 섬세하게 반영했다. 따뜻한 온기로 구성된 풍부한 컬러의 다양한 소재로 단정한 이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면에 자리 잡은 백라이팅 글라스 쇼윈도에 놓인 브랜드의 시그니처, 기묘세 패턴 장식이다. 덕분에 현대 감성의 메탈 프레임과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지어낸다. 쇼윈도뿐 아니라 부티크 내부의 글라스 백월 쇼케이스, 카펫에까지 섬세하게 브레게의 특징이자 자랑인 기묘세 패턴으로 장식해 브랜드 유산을 이어가고자 하는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브랜드의 DNA이자 2백 년이 넘게 전통을 이어온 브레게 장인 기술에 보내는 찬사이기도 하다. 이번에 리뉴얼한 부티크의 가장 큰 특징은 VIP 라운지. 브레게 고유의 네이비 블루 컬러 포일을 자니면 한층 더 프라이빗하게 브레게 타임피스를 감상할 수 있는 비일시러운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브레게 고유의 독보적인 감성과 위치메이킹 세계를 담고 있으며, 브랜드 창립자 앙투안-루이 브레게의 혁신적인 유산과 기술력, 2백46년 전통의 장인 정신, 그리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Walk in Color

지평선, 태양, 바람, 그리고 빛. 공간과 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장소에서 모델들이 걸어 나오는 런웨이가 시작되었다. 패션쇼 이상의 특별함을 보여준 예술적인 경험. 에르메스의 2022 S/S 컬렉션이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빛과 공간의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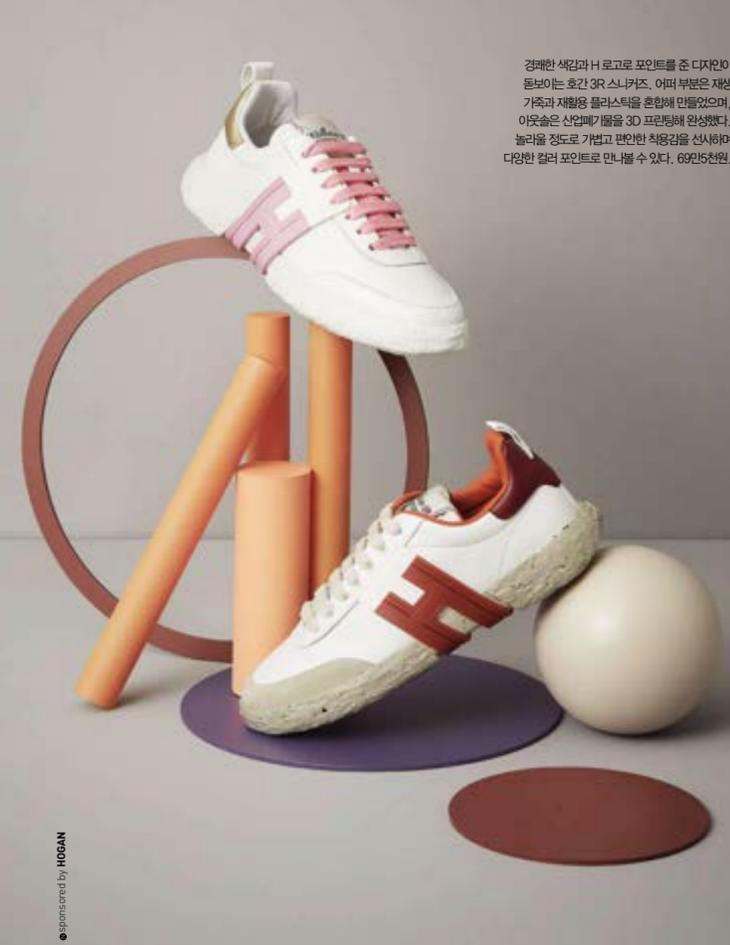
에르메스 여성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데주 바니-시불스키(Nadège Vanhée-Cybulski)는 이번 시즌 컬렉션을 아티스트 플로라 모스코비치(Flora Moscovici)와 함께했다. 파리의 공공장소를 특유의 컬러감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녀의 작업을 에르메스와 연결한 나데주의 선택은 너무도 탁월했다. 새로운 방식과 경험의 패션쇼를 원했던 에르메스와 나데주의 의도가 그녀의 작품을 접한 순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할까. "나는 빛이 가득 찬, 태양 같은, 페인팅을 통한 강력한 접근을 원했다." 나데주는 플로라와의 대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패션쇼는 파리 근교에 있는 르 부르제 공장에서 열렸는데 기념비적이면서도 개방된 공간감을 원했던 나데주가 늘 꿈꿔오던 공간이었다. 플로라는 이 공간을 활용해 20개 가까운 파노라마 대형 페인팅(높이 6m, 너비 9m 혹은 7m)을 제작했으며, 이 작품들은 미끄러지고 때론 겹쳐지고 앞으로 움직이면서 생명감과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패브릭 위에 회화적으로 재현한 컬러 페인팅은 햇살처럼, 혹은 땅의 기운처럼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해냈다. 자연과 건축, 회화와 설치 작품, 그리고 패션과 공간이 플로라의 작품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태양의 키스를 받은 자신감 넘치는 여성

"플로라는 본능적으로 에르메스의 방식과 수작업, 공예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는 나데주의 말처럼 플로라가 르 부르제 공장을 바람과 빛을 연상시키는 작업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에서 에르메스의 뉴 컬렉션은 더없이 완벽하고 감동적이었다. 팀이 원하는 컬렉션의 느낌은 그녀들의 표현에 따르면 '태양의 키스를 받은 여성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 태닝한 피부와 같은 내추럴 브라운, 맑은 공기와 바람을 떠올리게 하는 화이트, 땅과 흙의 컬러인 블랙과 카키 그레이 등 에르메스가 사랑하는 컬러들이 파노라마 페인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또 한 번 레전드 컬렉션을 완성했다. 패브릭보다 더 부드럽게 물결치는 가죽과 이국적인 매력의 아플리게 디테일, 크리스피한 소재와 가죽의 영리한 믹스 매치 등은 내년 시즌에 선보일 에르메스 컬렉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게 했다. 이번 쇼는 팬데믹 시대를 고려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으며, 지평선과 해안이 있는, 탁 트인 공간을 갖춘 도시(부산, 일본 가나가와, 뉴욕, 런던, 아부다비)에서는 각기 다른 시노그래피와 함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어 쇼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파리의 런웨이를 실시간으로 재현한 듯한 세트와 공간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바로 만날 수 있었던 쇼의 현장감은 해운대 밤바다의 청량한 기운과 어울려 있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듯하다.



1, 6 컬렉션 생중계를 볼 수 있었던 부산 해운대의 에르메스 이벤트 장소. 2, 3 현지 생중계 이후 부산에서 펼쳐진 2022 S/S 에르메스 컬렉션 리뷰 프라젠테이션. 쇼에 나왔던 의상을 바로 7, 8, 9에서 볼 수 있었다. 4, 5 가죽, 니트, 코튼 등을 주요 소재로 심플 럭셔리 룩을 선보인 에르메스 2022 S/S 런웨이. 회화적인 색감으로 돌출된 대형 페인팅 배경이 인상적이다. 7, 8 에르메스가 새롭게 선보인 스트랩 샌들과 원통형 핸드백.



경쾌한 색감과 H 로고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 돋보이는 호건 3R 스니커즈. 아퍼 부분은 재생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혼합해 만들었으며, 아웃솔은 산업폐기물을 3D 프린팅해 완성했다. 놀리울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다양한 컬러 포인트로 만나볼 수 있다. 69만5천원.



방수 내일분과 바이오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오버사이즈 다운 재킷의 롱 버전으로, 깨끗한 화이트 컬러에 매치한 그레이 컬러 포인트와 버튼 디테일이 매력적이다. 어느 의상이나 스타일링하게 매치할 수 있으며, 긴 길이와 부피에 비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특징. 보온성이 뛰어나 울거울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29만9천원.

think nature

환경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들고, 더 존중하는 지속 가능성의 시대. 재활용 소재로 탄생한 호건 3R 컬렉션을 이야기하다.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젠다리스, 편안함, 모던함이라는 호건 3R 컬렉션의 콘셉트에 맞게 남녀 모두 즐길 수 있는 보머 재킷. 재생 섬유와 합성 다운으로 만든 플링 패턴에 블랙·올리브·레드 컬러로 출시한다. 가벼우면서도 보온 효과가 뛰어나 환경기에 가볍게 걸착이 인상적이다. 1백2만5천원.



남성용 사이즈의 호건 3R 스니커즈. 미친 듯이 재생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혼합해 제작했다. 화이트 가죽에 레드 로고와 네이비로 포인트를 준 버전과 네이비 가죽에 레드 컬러의 H 로고와 그레이 컬러 디테일을 더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상에도 매치하기 좋다. 69만5천원. 에디터 선정인

Perfect Eyes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눈가 피부. 미세 주름, 부기, 다크서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탄력 넘치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아이 케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순서대로) **클리어드 보메 시-리피트 아이 크림 N** 독자적인 폴리펩인 뷰티피어 어 성분! 풍부한 영양과 에너지를 전해 활력 넘치는 눈가 피부를 완성해준다. 눈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텍스처가 수분과 영양을 즉각적으로 더해준다. 또 프랑스 오베르뉴 청정 지역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로즈 시-리피트의 알코 황이린 향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채워준다. 20ml 58만원. 문의 080-564-7700 **클린 아이비 코안 아이 R 리피어 세럼** 위상 성에서 수확한 위상 하나, 로얄젤리 등 자연에서 유래한 다양한 발효 성분과 탄력 고분자를 결합한 블레이크이 리피어 테크놀로지™ 성분이 빠르게 스며들어 풍부한 영양을 선사한다. 미세 잔주름을 매끄럽게 자연스러운 광채를 부여한다. 내장된 진주알 모양 마사지 애플리케이터가 눈가에 울림 효과를 선사해 부기를 즉각적으로 완화해준다. 20ml 14만원. 문의 080-343-9500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피어 아이 컨센트레이트 매트릭스** 항산화 효과로 자민 독점 크노노스™ 성분이 밤사이 눈가 노화 징후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특별 설계한 크라이오-스틸 원드 애플리케이터가 눈가 피부 온도를 약 1.65°C 낮추고, 미세 순환을 촉진해 눈가 피로를 덜어주며, 다크서클이 열 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15ml 10만5천원. 문의 02-3971-3212 **클리앙스 더블세럼 아이** 아이 세럼과 아이 크림, 두 가지 제형이 펄핑과 동시에 황금 비율로 신성하게 배합되어 나오는데,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풍부한 영양을 선사한다. 프랑스 오베르뉴 지역에서 직접 수확한 후 추출한 1백97가지 식물을 조합한 와인드 처럼의 정향 추출물이 눈가 피부를 활성화해 탄력을 증진시키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광채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20ml 10만5천원. 문의 080-542-9052 **디올 뷰티 디올 프레스타이즈 리피어 세럼 드 로즈 이오 어드밴스드** 노르망디 해안가 피어산 아생 장미 꽃잎과 알에서 추출한 227가지 마이크로-뉴트라먼트 유효 성분과 장미 꽃기 수액을 농축한 표출리가 눈가에 탄력하고 밝은 장미빛 생기를 부여한다. 골드 페달 애플리케이터가 눈가 피부에 정향한 자립과 마사지 효과를 부여하고, 주름을 매끈하게 정돈해 즉각적으로 탄력 넘치고 또렷한 눈매를 연출해준다. 20ml 25만원. 문의 080-342-9500 **리프레이 플러리움 레어 오-레주베네이션 아이 엘릭시어** 리프레이 셀룰라 콤플렉스와 플라타늄 엘티 랩티드가 핵심이 되어 피부에 생명력과 에너지를 부여해 생기와 활력 넘치는 피부로 바꿔준다. 고농축 제형이지만 끈적이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는 타입. 15ml 가격 미정. 문의 02-511-6626 **에디터 아이유**

이스트트렌드 배지

special tightening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동안 관리에 소홀했던 피부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바쁜 일상으로 차일피일 관리를 미루고 있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추천한다. 떨어진 피부 탄력을 되찾아줄 효과적인 실크의 홈 뷰티 디바이스 듀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건강한 피부 케어의 시작. 모공 관리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의 공통점은 채우기 전 잘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품 사용 시에도 각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유효 성분이 통과해야 할 모공이 깨끗하지 않다면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피부 노화를 피할 수 없을 것. 자극만 남기고 효과는 미미한 제품보다는 홈 뷰티 디바이스를 활용해 보다 확실하게 모공을 관리할 것을 추천한다. 실크 레빗 프레스타이즈는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해 정밀하게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며, 피지와 노폐물을 흡인해 모공 관리와 탄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홈 케어 뷰티 디바이스다. 필요에 따라 네 가지 타입의 팁을 골라 원하는 부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LED 화면에 사용 부위 및 시간이 표시되어 혼자서도 쉽고 편리하게 각질과 모공을 관리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은 19만8천원.

늘어지는 환절기 피부 솔루션

피부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계절, 가을. 특히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할 시기인 이 계절을 잘 보내야 내년엔 한 살 더 어려진 피부를 만날 수 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기온이 되는 페이스라인. 턱 라인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눈이 보다 효과적이고 본격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때다. 추천하는 제품은 고주파 피부 관리기 실크 페이스타이트 3.0. 피부과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화장품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홈 케어 뷰티 디바이스다. 피부 속 탄력을 채우고 주름 완화 및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바이올라 고주파 에너지와 콜라겐 생성,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LED 레드라이트, 그리고 이 레드라이트를 피부 속 깊숙이 도달시키는 열에너지를,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해 떨어진 피부 탄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무너진 페이스라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 유·무선 듀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이질감 없는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췄다. 최근 피부과에서 3대 리프팅 시술로 꼽히는 인모드 레이저 리프팅 기기를 생산하는 인모드시를 계열사로 둔 실크 제품인 만큼 효과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실크 페이스타이트 3.0으로 한 층 더 탄탄한 피부에 도전해보자. 제품 가격은 55만원. **에디터 상영민**

● sponsored by SILK'N



editor's Pick

환절기 피부를 위한 극약 처방!
photographed by Jeong J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형시르 루즈 슈어 벨벳 #37 루즈 그레네** 건조한 입술 때문에 메트는 제형은 마더하는 에디터의 생각을 비추듯 립스틱, 밀고 버터 성분을 함유해 충분한 보습력을 발휘한다. 부드럽게 발려 입술 위에 자연스럽게 퍼지는데, 놀라운 만큼 가벼운 텍스처가 자꾸만 덧바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3.4g 4만9천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이주이*

스쿠 비아눔 더 마스크 상·하, 정형·내부 추출물과 독자적 보습 성분인 비아눔 폼 플렉스가 보습은 물론 피뮌 개선 등 환절기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준다.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 맑고 화사한 피뮌을 얻을 수 있다. 치분한 플 로럴 우디 향이 지친 마음을까지 토닥여준다. 33ml X 5pcs 14만원. 문의 02-6905-3369. *by 에디터 이주이*

구피 뷰티 쿨선 드 보메 인텐스 오일과 매캐할 피부의 원상적인 조항으로 피부에 은은한 결함을 부여함과 동시에 너무 기름지거나 매트하지 않게 피부에 착 밀착된다. 글리콜과 글리세린을 혼합해 만든 제형이 건조한 피부에 보습감을 선사한다. 소성하고 실을 만큼 귀여운 핑크 패키지가, 쿨선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 14g 9만9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정미연*

아메 아센틱 랩탈 #08 라스티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프랑스 이브 비건 인 종을 받았다. 산기 화개도 개개의 입술 온도에 따라 컬러 피그먼트가 반응하며 자연스러운 나만의 컬러로 변색된다. 얼굴이 하얀 편인 에디터는 붉은 핑크 컬러를 선택했다. '꾸안꾸' 스타일에 제격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내추럴 입술 연출이 가능하다. 3.4g 3만3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정미연*

골레드보 보메 홀리데이 에디션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선보이는 기든 오브 스킨 렌더의 라 크렘. 프랑스 아티스트 마크레 카이유와 컬러파라이산해 완성한 패키지는 신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를 내리고 강렬한 정열의 생명이 가득하다. 주름과 마백 근간에 효과적인 라 크렘의 효과는 말해 무엇 하라. 아침저녁으로 바르면 건조한 피부가 한 방에 촉촉해진다. 30ml 6만8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정미연*

샹티카 이저스트 스킨 #이유라 가볍고 신뜻한 타입의 틴트드 모이스처라이저, 스킨케어 제품처럼 편안하게 발리는데, 카바콜이나 톤 보정 효과는 색조 제품 못지 않다. 들뜨지 않고 촉촉하면서도 신뜻한 마무리감을 만족스럽고, SPF 15의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일상적인 피부 보호까지 이룬다. 미용까지 착한 비건 프렌들리 제품! 50g 11만9천원. 문의 070-4370-7511. *by 에디터 이주이*

데코르테 컴포트 데이 미스트 벨란싱 모이스처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인 에디터의 환절기 최대 난제는 바로 속건조. 초저세 입자를 함유해사인지 로션을 바른 뒤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다. 조약돌 모양의 콜라겐 사이즈 덕에 휴대도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칙칙 부러우면 피부가 한결 편안해진다. 비오버브 나뭇잎 오일과 오스스 뿌리, 올리브 나뭇잎 추출물을 함유했다. 60ml 3만6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주이*

젠즈 플라워하이엔드 오드 두왓 젤 올레로 스무 샹이 된 이 향수는 약속하지만 때면 신상하게 느껴진다. 생생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탕과인 레몬과 불가마인 로즈 워터, 관능적인 화이트 마스크와 바닐라가 어우러져 상쾌한 마스크 플로럴 향을 뿜어준다. 스무 샹 조차의 첫 향수로 선풍하기 좋은 향이다. 100ml 13만5천원. 문의 080-344-9500. *by 에디터 정미연*

닥터지 레드 블러미쉬 벨란싱 에센스 플루이드 건조한 피부의 원상적인 조항으로 유·수분 밸런싱이 임의 되었을 때 이 에센스를 만 니다. 에센스 성분! 불필요한 유분은 견어내고 멀티타이머드 성분이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이 쉼어주는 느낌. 피부 불균형을 주는 이들에게 추천 한다. 150ml 3만1천원. 문의 1811-9415. *by 에디터 정미연*

시클리 수딩 인터-덴드라프 큐어 비르고 씻어내야 하는 칸디다나 헤어 팩보다 헤어 오일이나 세뮌을 애용하는 편이다. 이 제품 역시 씻어낼 필요가 없을뿐더러 비르자까지 모발에 신상하게 스며드는 것은 물론, 비터인 B: 성분으로 모발에 영 양을 채우고 끊김 없이 튼튼한 모발로 가꾸어준다 고 하니 기대가 된다. 200ml 14만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정미연*

포이레 수블리메 린류지움 화이트 로즈와 벌노란꽃 추출물의 풍부한 영양 성분을 담은 아이템. 기든 스킨케어 루틴에 이 제품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피부가 한 층 건강해졌 것 같다. 고농축 에센스 제형이 피부를 깊숙히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 탁월하고, 촉촉하게 스며들어 피부를 정화하고 활력을 더해준다. 100ml 6만2천원. 문의 02-310-5025. *by 에디터 이주이*

에스티 로더 뉴트리션스 수퍼-포어그레시 레디언트 에너지 클렌징 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리프레시를 해주는 클렌징 과정을 즐기는 편. 이 오일은 클렌징을 더 즐겁게 해준다. 얼굴에 도포하자마자 기분을 좋게 하는 은은한 향분 아이라 피부에 부드럽게 퍼지는 텍스처까지, 클렌징 후 적당한 촉촉함을 남겨 건조한 계절에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400ml 9만3천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정미연*

아모레퍼미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피부 분연의 빛을 깨우는 앰플 루틴과 비터인 C보다 약 20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 피부 입체 탄력을 향상하는 EGCG 파우더를 결합한 고효능 앰플. 이왕치 않으려면 바르던 일주일도 1개월 사용하게 되는데, 1주 만에 인색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기 시작했다. 7ml+0.6g 16만원. 문의 080-020-5757. *by 에디터 정미연*



SHOWROOM

BEAUTY



사벨 뷰티 수블리미지 르 수앙 페르펙트 수블리미지 라인업의 모이스처라이징 펄 프라이머를 출시했다. 미세한 잔핏 입자는 피부를 고르게 연출하고 잔주름과 피부 결까지 커버해준다. 메이크업 베이스 또는 광채 하이라이터로 사용 가능하다. 문의 080-332-2700



골레드보 보메 기든 오브 스킨렌더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기든 오브 스킨렌더를 선보인다. 파스트 에센스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더 세럼과 하이엔드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라 크렘을 먼저 공개했다. 문의 080-564-7700



에스티 로더 뉴트리션스 수퍼-포어그레시 레디언트 에너지 클렌징 오일 식육 농축액을 함유한 촉촉한 클렌징 오일을 출시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며 자극 없이 쉼웨어,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말끔하게 지워 한 번에 딥 클렌징이 가능하다. 문의 02-6971-3212

태그호이어 가려라 데이 데이트 스포츠 정신의 표상인 가려라 컬렉션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 그중 데이 데이트 41mm 버전은 3시 방향 날짜창의 프레임 을 더욱 얇게 디자인해 깔끔함을 더했다. 문의 02-548-6021

반클리프 아펠 갈라리아 부티크 리로케이션 반클리프 아펠이 갈라리아 부티크를 새롭게 확장해 오픈했다. 듀플렉스 구조로 설계해 메종 특유의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을 그대로 담았다.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 컬렉션 및 하이 주얼리, 워치까지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668-1906

우블로 박병 유니코 벨루티 알루미니오 우블로와 벨루티가 5년간의 협업과제이션을 바탕으로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한다. 지름 44mm의 사탕한 타타늄 케이스에 3일 동안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며, 특별한 보관 케이스와 트래블 파우치, 벨루티 로고 디테일의 스텐 키링까지 제공한다. 1백 개 한정으로 소장 가치 또한 높다. 문의 02-777-9005

스피드 007 X 스피드 해피버트-골든 하트 컬렉션 영화 007 시리즈의 '노 타임 투 다이' 개봉을 기념하며 메종에서 해피 하트-골든 하트 컬렉션을 출시했다.



팔찌, 귀고리, 펜던트 등 쇼퍼드의 시그니처인 탠싱 다이아몬드로 구성했다. 문의 02-6905-3390

쇼메 비 마이 러브 쇼메의 대표 컬렉션인 비 마이 러브 신제품을 출시한다. 꿀벌에게 영감을 받아 벌집을 연상시키는 탠딩, 브레이슬릿, 링 등 다양한 구성으로, 로즈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1597

사벨 J12 칼리버 12.2 에디션 1 2년 전 칼리버 12.1을 출시하며 스위스 매뉴팩처 캐니시가 사벨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고 개발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던 사벨이 J12 칼리버 12.2 에디션 1을 선보인다. 바켓 모티브 디자인에 톤온 톤 컬러와 다이아몬드를 더한 이번 에디션은 5백55개 한정으로 출시한다. 문의 080-200-2700

골든듀 워터펠리투 모네의 정원에 핀 수련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수련에 맞춘 이슬방울의 아름다움을 핑크 골드와 플라티넘으로 화사하게 형상화했다. 문의 1588-6576



타사키 타사키 아틀리에 스페셜 전시 장실 시그니얼 호넬에서 타사키 아틀리에 스페셜 전시를 진행했다. 전시는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전설 속 도시 아틀란티스의 세계를 표현한 오션 프론티어와 자연에 대한 존경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리빙 네이처, 27지 태미의 컬렉션을 선보였다. 문의 02-3461-5558



JEWEL & WATCH

펜디 펜디 X 리모와 리모와의 장인 기술과 라지 지 제작 노하우가 펜디의 탁월한 품질을 지닌 고급스러 운 디테일과 만나 세련된 캐주얼을 탄생시켰다. 블랙과 내추럴 알루미늄 컬러로 만나볼 수 있으며, 셀라리아 가족 내임 태그에 핫 스탬핑으로 미니멀을 각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02-514-0652

브루넬로 쿠차셀리 2022 S/S 컬렉션 2022 S/S 패션쇼에서 공개한 이번 컬렉션은 채도 높은 컬러를 통해 에너지와 활력을 발산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구현했다. 자유분방하고 가벼운 터치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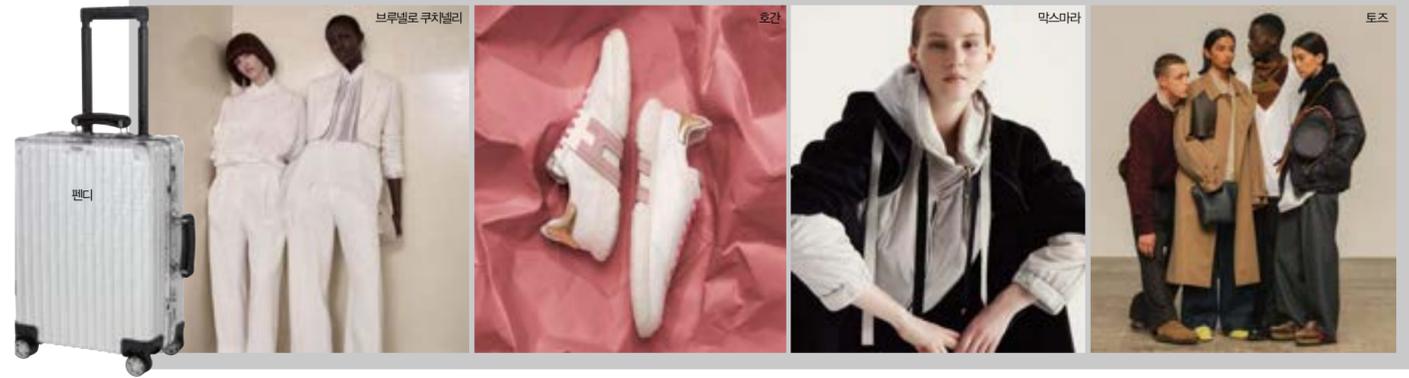
게 한다. 문의 02-3448-2931

호진 3R 컬렉션 호진은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담아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책임감 있는 제품 혁신을 추구한다. 이번 3R 컬렉션에는 영국 출신 아티스트 쿠엔틴 존스가 호진을 위해 제작한 영상 (피워블한 환경의 플라주드) 같이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3438-6234

막스마라 프리미엄 아우터 컬렉션 자체 개발한 지속 가능 섬유 카멜러스 충전재를 사용한 더 큐브 with 카멜러스를 선보인다. 막스마라의 아이코닉한 카펠 헤어 코드를 제작

하고 남은 원단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가공해 견고한 품질에 뛰어난 보온성을 갖췄다. 10'지 스타일과 카펠·차콜 컬러 등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9-3450

토즈 토즈 팩토리 X 헨드 스킨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토즈 팩토리의 일환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두 브랜드가 만났다. 장인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헨드 스킨의 디자이너 로카사카자와 토즈의 세계를 창의적인 스타일과 장인 정신으로 새롭게 해석해 말라노 패션 위크에서 공개했다. 문의 02-3438-6008



FASHION



CHANEL

HIGH JEWELRY

N°5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55.55캐럿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컷 DFL타입 IIA.